



## Credit/ESG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26년 6월 10일 | Global Asset Research

# CrediVille/ESG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 관련 공시 규칙 폐지 제안

### 해? 말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이후 에너지 및 환경 정책에 있어 반(反)ESG라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했으며 전기차 보급 정책을 폐기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같은 미 행정부의 탈 ESG행보는 이제 기후 공시 백지화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지난 5월 29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는 기업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된다는 명분으로 기후 관련 공시 규칙(Climate-Related Disclosure Rules)의 철회를 제안했다. 해당 규칙은 당초 바이든 행정부 시절 기후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2024년 3월 6일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바 있는 규정이다. 자신들이 발의한 규정을 스스로 폐기해버린 셈이다.

아무튼 해당 규정은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기후 위험이 기업의 비즈니스와 재무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된 바 있다. SEC는 금번 기후 관련 공시 규칙 철회의 주된 논리로 자신들이 기후 관련 공시를 요구할 법적 권한이 부재하다는 점, 그리고 권한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편익 대비 비용이 과도하다는 점, 그리고 공시 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자본시장 참가 의지가 저해된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SEC는 금번 규칙 폐지안에 대해 8월 3일까지 6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최종 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번 SEC의 결정은 실제로 기업들의 기존 공시 환경에 별다른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해당 규칙은 2024년 채택되었으나 재계와 공화당의 소송으로 효력이 정지되어 시행되지 않고 있던 규정이기 때문이다(다만 SEC는 금번 폐지안에서 약 47%의 연차보고서가 규정과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하였다).

한편, 주 정부의 재량권이 큰 미국은 기후 공시와 관련해서도 주별로 개별 법안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 사례를 들 수 있다. 캘리포니아 소재 기업 중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은 캘리포니아 기업 온실가스 공시법(SB253)에 의거해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해야 한다.

최근 미국의 이 같은 행보는 EU의 지속가능성 규제 완화와도 결을 같이하고 있다. [참고: CrediVille/ESG: EU 지속가능규제 간소화 추진(25.12.17)] EU에서는 지난 2026년 2월 이른바 'Omnibus I 패키지'가 공식 채택돼 3월 18일 발효됐다. 옴니버스 패키지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및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부담 완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EU 탄소노미 등 주요 규제의 적용 시기 연기 및 의무 대폭 완화가 담긴 패키지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 따라 CSRD 적용 대상이 '직원 1,000명 초과' 및 '연매출 €4.5억 초과 대기업'으로 대폭 축소되어 기존 법안 대비 약 80%의 중소·중견기업, 금융 지주사가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른바 기후변화 주도국이라 할 수 있는 EU 마저 기후 공시 정책 기초를 선회함에 따라 그간 갈팡질팡 해오던 미국은 더할 나위 없는 우군을 얻은 셈이다.



Analyst 김성만 credinal@hanafn.com  
RA 김기범 kbkim1@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한편 세상 모든 나라(블록)들이 이 같은 반(反)ESG, 규제 경량화 추세에 편승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간 이른바 ‘기후 악당’으로 서방세계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온 중국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국은 ISSB(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위원회)의 접근방법을 받아들여 재정부의 주도하에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9개 부처가 공동으로 2024년 12월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준칙을 발표하였다. 이후 2025년에는 상장회사 정보공시 관리규정을 개정해, "상장사는 거래소 규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이후 거래소 자율규제지침에 따라 2026년부터 상하이·선전 거래소 상장기업 중 '특정 지수 편입 종목' 및 '국내외 동시상장 기업' 450여 개사에 대해 ESG 공시가 의무화되었다. 추가로, 중국은 2030년까지 공시기준을 완성하고 의무 적용 대상을 상장사 전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물론 중국기업들의 ESG 공시에 대해 형식적이거나 홍보성이라는 일부 지적이 있다. 하지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총 배출량 기준) 1위인 중국으로서는 기후 관련 공시라도 제대로 해야겠다는 현실적 필요성이 작용하였을 것이라 판단된다.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한국 또한 지난 2월 26일 한국 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와 제2호를 의결하였고 현재 법적 의무화 이전인 자발적 공시 단계에 있다.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제도는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도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는 데다, 각국의 기후 공시 제도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실제 시행 시점에는 공시 범위와 적용 방식에 적지 않은 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들어 중동지역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됨으로 인해 ESG 및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시계의 추는 지속적으로 역행하는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봉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하여 고유가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난 2022년 러-우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와 현실적 제약이 부각되며 ESG 접근 방식이 전면적으로 재편되었듯이, 향후에도 ESG 관련 의제들의 추진동력이 추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러-우 전쟁 이전 방위 산업은 ESG 투자에서 배제 대상으로 판단되었지만, 이후 ‘공격이 아니라 방어는 생존권’이라는 명분을 기반으로 재평가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일례로 독일의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 (AGI)는 2025년 3월, 지속가능성 펀드에서 방산 기업 투자를 제한하던 두 가지 조건을 철회했으며, 덴마크 아카데미커연금(AkademikerPension)은 같은 해 6월 유럽 방위산업체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위 사례들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최근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은 각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을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전반적 에너지 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간 그토록 탈피하고자 노력해왔던 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는 흐름은 ‘에너지 안보-에너지 형평성-환경적 지속가능성’이 공존하기 힘든 ‘에너지 트릴레마’를 다시금 환기시켜주고 있다. 고유가 기조가 장기화되고 에너지 패권 경쟁이 심화될수록,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는 현실적 이해관계에 밀려 후순위로 전략할 위험이 있다.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민감한 한국으로서는, 에너지 안보와 지속가능성으로의 전환을 동시에 아우르는 실용적인 한국형 모델의 도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도표 1. 미국 SEC에서 폐지를 제안한 기후 관련 공시 관련사항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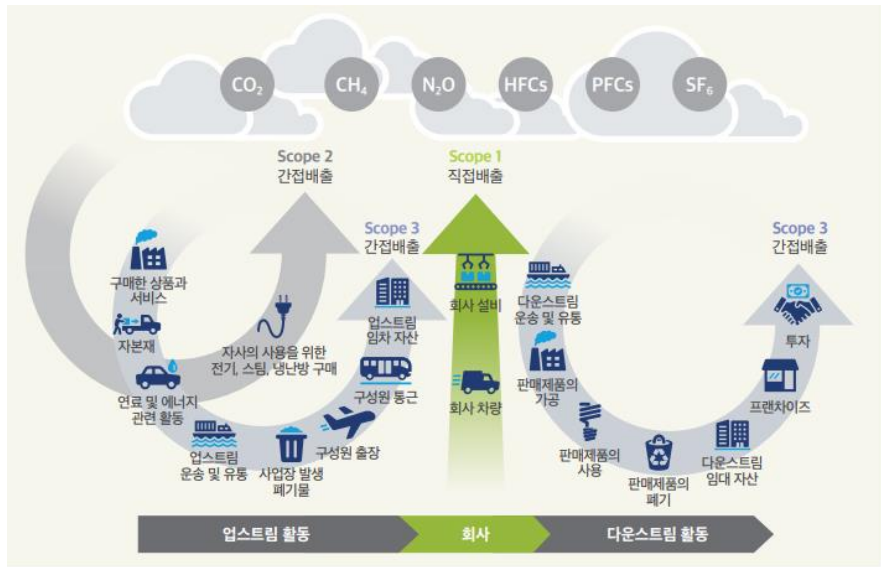
미국 SEC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명문화된 기후 관련 공시 제도의 폐지를 제안

구분	내용
대상 규칙	The Enhancement and Standardization of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
공시 사항	기후 리스크의 거버넌스·전략·관리, 재무제표 영향,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2 포함, 3 제외)
대상·적용시기	등록기업 규모별 단계 적용 예정이었으나 소송으로 인해 <b>현재 미시행</b>
제안 조치	<b>규칙 전면 폐지 제안</b>
폐지논거 ①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는 위원회의 법정 공시권한 초과
폐지논거 ②	불필요·과도한 비용·자본형성 저해 등 정책적 사유
향후 일정	60일간의 의견수렴 (2026.08.03 마감)

자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하나증권

도표 2.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인 Scope 1, 2, 3 구분

Scope 1: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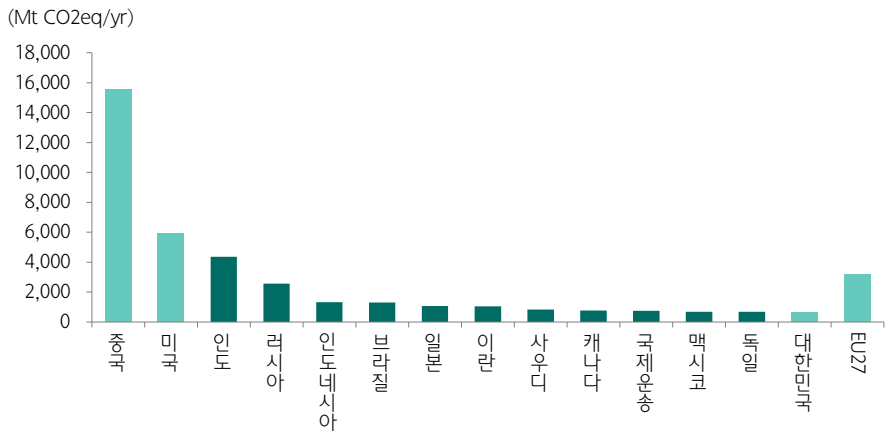
Scope 2: 기업이 구매하거나 획득하여 사용한 전기, 증기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3: 기업 가치 사슬 내에서 발생하지만 Scope2에 포함되지 않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사회적가치연구원, 탄소중립연구원. 실무자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3 측정 가이드북, 하나증권

도표 3. 2024년 전세계 온실가스 총배출량 순위 (총량기준)

최근 전세계 온실가스 총배출량 기준으로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인도. 한국은 총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13위의 국가



자료: EDGAR Community GHG Database (EDGAR\_2025\_GHG, 2025), European Commission JRC, 하나증권

도표 4. 중국 주요 증권거래소 ESG 공시 가이드라인 비교 (2024년 기준)

중국 주요 증권거래소 내  
주요 기업은  
2026년부터 ESG공시가  
의무화

구분	상하이증권거래소(SSE)	선전증권거래소(SZSE)	베이징증권거래소(BSE)
적용 대상	상해 180, 과학기술 50 지수 구성기업, 양시 상장기업(제3조)	선전 100, 창업판 지수 구성기업, 양시 상장기업(제3조)	전체 상장기업 (중소기업 위주)(제3조)
의무 수준	2026년부터 강제공시(2025년 실적 기준)(제63조)		자발적 공시 유지(제3조)
중점 분야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관리, 데이터 보안(제20조, 24조)	녹색기술 혁신, 지식재산권 보호(제20조, 54조)	중소기업 친화적 간소화된 기준(제57조)
지역 특화	국제금융 허브로서 글로벌 표준 강조	하이테크 산업클러스터 반영	농촌진흥, 지역발전 기여도 평가(제38조)
공시 주기	연간보고(정기보고서와 동시 또는 별도)(제4조)		

자료: 김정진. 중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주요 내용과 ESG 공시의 최근 동향. 한국법제연구원, 하나증권

도표 5.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2호 '기후 관련 공시' vs. ISSB의 IFRS S2

IFRS S2에 비하면  
한국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2호는  
기업의 재량이 있는  
공시기준서라 볼 수 있음.

향후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국제정합성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함

구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2호	IFRS S2
미공시 사실 및 근거 기재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없어 이 기준서에 따른 공시를 생략 하는 경우, 그 사실 및 근거를 기술	-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유예	최초 적용일 이후 3년간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	적용 첫해 면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에 사용한 방법 별 세분화 공시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스코프 1, 2 배출량을 측정한 경우, 기업이 사용한 방법별로 배출량을 구분하여 공시	-
내부 탄소 가격	내부 탄소 가격 관련 정보 중 탄소 가격의 적용 여부와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는 공시. 톤당 가격 공시 여부는 기업이 선택	내부 탄소 가격 적용 여부와 방법, 톤당 가격 공시
산업기반 지표	산업기반 지표를 공시할 수 있음	산업기반 지표를 공시
산업기반 지침	IFRS S2 이행에 관한 산업기반 지침을 참고할 수 있음	IFRS S2 이행에 관한 산업기반 지침의 적용가능성을 고려
시기	2026.02.26 최초 제정	2023.06.26 발표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하나증권

## 크레딧스프레드 등향 및 전략

### 국고채금리 상승, 신용스프레드 혼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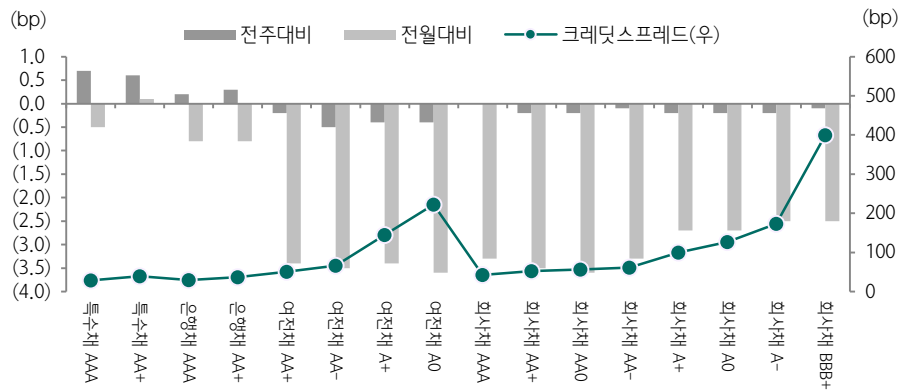
#### 국고채금리 상승

지난주 국내 채권시장은 크게 약세를 보였다. 3년물과 10년물 금리가 각각 15.7bp, 18.7bp 상승하며 수익률 곡선은 더욱 가팔라졌고, 10년물 중심의 약세는 글로벌 초장기물 약세와 동조화된 모습이다. 대외적으로 미-이란 종전협상이 교착을 반복하며 유가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컨센서스를 크게 웃돈 미국 5월 비농업고용지표가 매파적으로 해석되며 10년물 미국채금리는 재차 4.5%를 상회했다. 대내적으로도 높은 물가(5월 CPI 3.1%)와 양호한 성장세가 고금리를 정당화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매파적 기초 전환이 약세를 뒷받침했다. 여기에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도가 이어지며 달러-원 환율이 1539원선을 재차 돌파해 정책금리의 운신의 폭을 좁혔다.

#### 신용스프레드 혼조세

지난주 신용스프레드는 섹터별/만기별로 혼조세를 보였다. 섹터별로 공사채/은행채는 약보합세를 보인 반면 회사채/여전채는 강보합세를 보였다. 만기별로는 그 이전주에 이어 단기구간(1년물)의 약세흐름이 지속되었다. 거시지표가 고성장/고물가/고금리상황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양상으로 전개됨에 따라 통화정책변화에 대한 기대(기준금리인상)가 단기물에 대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면서 단기물 신용스프레드에도 반영되고 있다.

도표 1. 주요 크레딧 채권 스프레드 주간/월간 변동 (3년물 기준)



주: 2026.6.5 기준 /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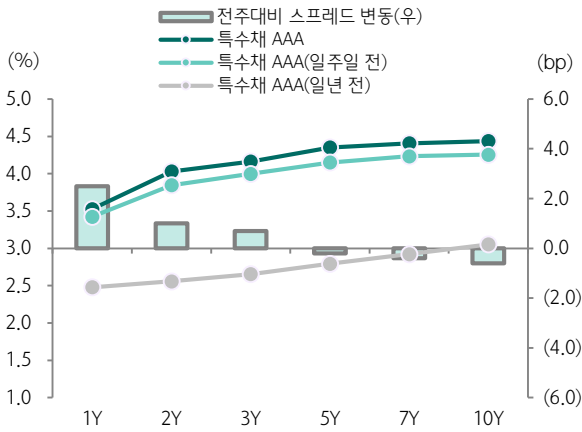
도표 2. 크레딧채권 금리 및 스프레드 변동

(단위: %, bp)

구분	금리					스프레드					스프레드 변동(WoW)					스프레드 변동(MoM)					
	1Y	2Y	3Y	5Y	10Y	1Y	2Y	3Y	5Y	10Y	1Y	2Y	3Y	5Y	10Y	1Y	2Y	3Y	5Y	10Y	
국채	3.24	3.79	3.88	4.12	4.25	-	-	-	-	-	5.9	15.7	15.7	20.5	18.7	21.5	27.0	26.5	32.4	32.7	
특수채	AAA	3.53	4.03	4.16	4.35	4.44	44.1	21.0	28.2	23.2	18.4	2.5	1.0	0.7	-0.2	-0.6	14.1	0.0	-0.5	0.0	-1.7
	AA+	3.58	4.13	4.27	4.48	4.63	49.5	31.0	39.3	35.8	38.0	2.5	0.9	0.6	0.0	-0.5	15.1	0.2	0.1	0.5	-1.3
은행채	AAA	3.57	4.00	4.17	4.41	4.67	47.9	18.4	29.3	29.3	41.8	3.3	-0.5	0.2	0.3	0.0	15.3	-0.7	-0.8	1.3	-0.6
	AA+	3.61	4.09	4.24	4.49	4.75	52.7	26.6	36.4	36.8	49.9	3.3	-0.5	0.3	0.2	0.0	15.4	-0.7	-0.8	1.2	-0.6
여전채	AA+	3.73	4.30	4.39	4.50	5.62	64.8	47.5	50.8	38.0	136.8	3.1	-0.3	-0.2	-0.3	-0.2	12.2	-3.3	-3.4	-2.1	-1.5
	AA-	3.82	4.41	4.54	4.77	6.02	73.0	58.6	66.3	64.6	176.4	2.8	-0.6	-0.5	-0.3	-0.2	12.2	-3.1	-3.5	-2.1	-1.6
	A+	4.16	4.89	5.33	5.90	6.71	107.8	107.2	144.8	178.2	245.8	3.1	-0.5	-0.4	-0.3	-0.1	12.3	-2.7	-3.4	-2.1	-1.5
	A0	4.83	5.65	6.10	6.56	7.13	174.6	182.6	222.0	244.2	287.8	3.1	-0.5	-0.4	-0.3	-0.2	11.6	-2.7	-3.6	-2.1	-1.5
회사채	AAA	3.62	4.23	4.31	4.45	4.74	53.5	41.0	42.8	32.9	49.0	1.7	-0.3	0.0	0.0	0.0	8.2	-1.5	-3.3	-2.6	-0.7
	AA+	3.71	4.30	4.40	4.54	5.03	62.5	48.1	52.3	42.2	77.4	1.6	-0.5	-0.2	0.0	0.0	10.1	-1.7	-3.5	-2.3	-0.5
	AA0	3.75	4.33	4.44	4.61	5.37	66.0	51.2	56.3	48.9	111.4	1.6	-0.4	-0.2	0.0	0.0	10.1	-1.7	-3.6	-2.3	-0.6
	AA-	3.78	4.38	4.50	4.71	5.73	69.5	56.1	61.5	59.1	147.6	1.6	-0.5	-0.1	0.0	0.0	10.1	-1.6	-3.3	-2.2	-0.6
	A+	3.93	4.66	4.88	5.38	6.31	83.9	84.0	99.7	126.3	205.5	1.6	-0.2	-0.2	0.0	0.0	9.2	-1.2	-2.7	-1.9	-0.6
	A0	4.08	4.85	5.15	5.83	6.77	99.8	102.5	126.9	171.4	251.7	1.6	-0.3	-0.2	0.0	0.0	9.2	-1.2	-2.7	-1.8	-0.6
	A-	4.36	5.20	5.61	6.42	7.28	126.9	137.6	173.2	230.4	302.8	1.6	-0.2	-0.2	0.0	0.0	9.4	-1.1	-2.5	-1.6	-0.6
	BBB+	5.41	7.24	7.88	8.30	8.78	232.5	341.5	399.8	418.3	452.7	1.8	-0.3	-0.1	0.0	0.0	9.1	-1.4	-2.5	-1.6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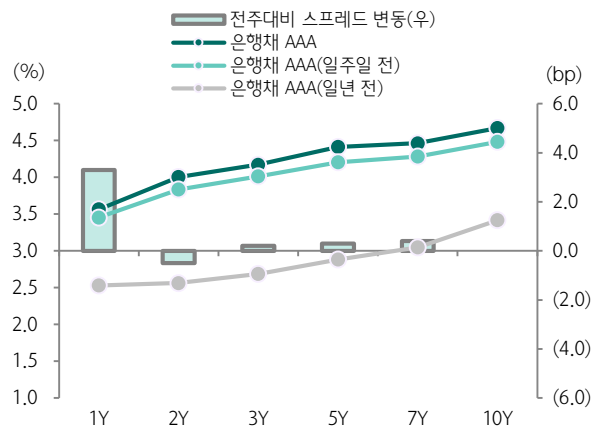
주: 1) 2026.6.5 기준, 2) 1Y, 2Y는 통안채(이표) 동일물 대비. 이외 3Y 이상은 국고채 동일물 대비 /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3. 특수채 AAA 금리커브와 스프레드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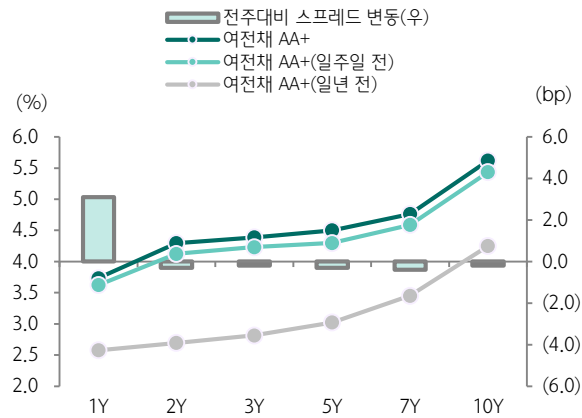
주: 2026.6.5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4. 은행채 AAA 금리커브와 스프레드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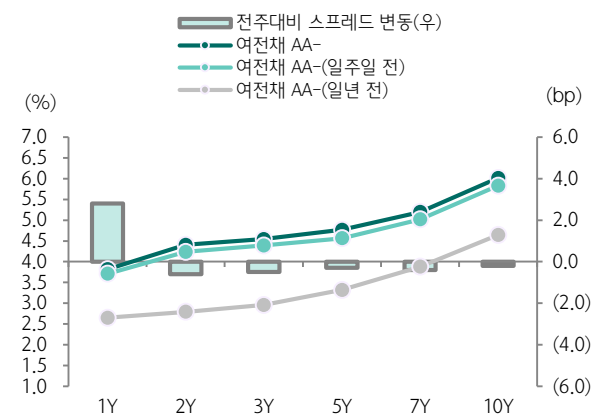
주: 2026.6.5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5. 여전채 AA+ 금리커브와 스프레드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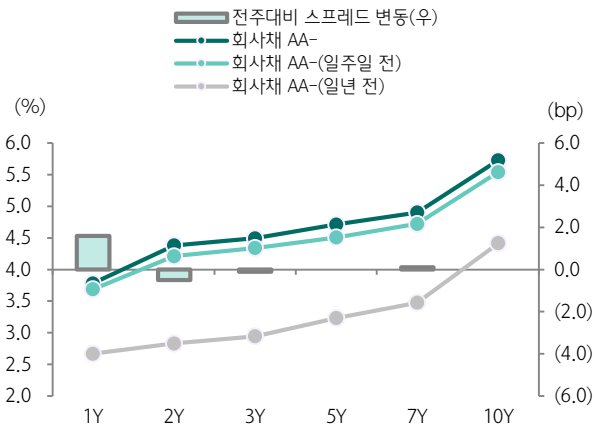
주: 2026.6.5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6. 여전채 AA- 금리커브와 스프레드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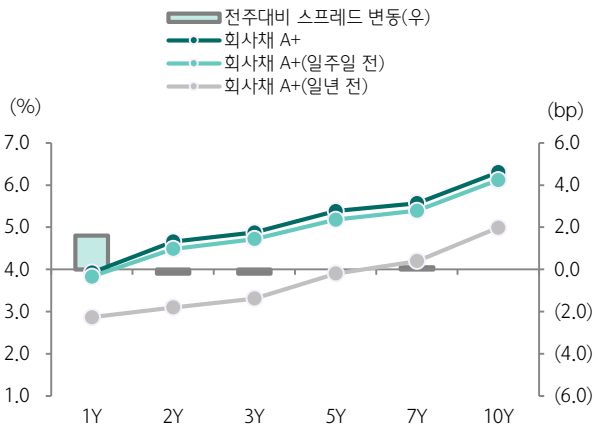
주: 2026.6.5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7. 회사채 AA- 금리커브와 스프레드 변동



주: 2026.6.5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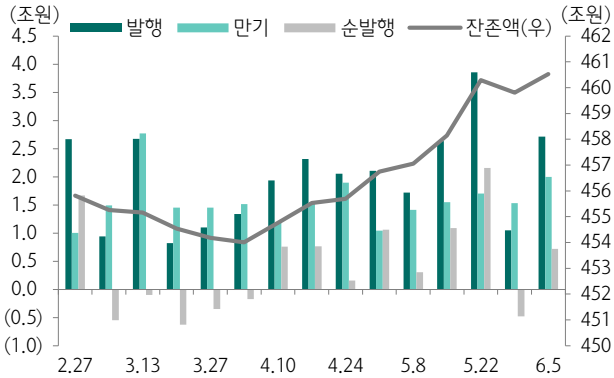
도표 8. 회사채 A+ 금리커브와 스프레드 변동



주: 2026.6.5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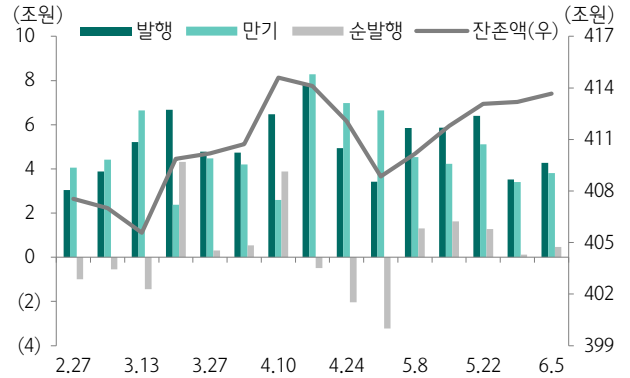
# 발행시장

도표 9. 특수채 발행/만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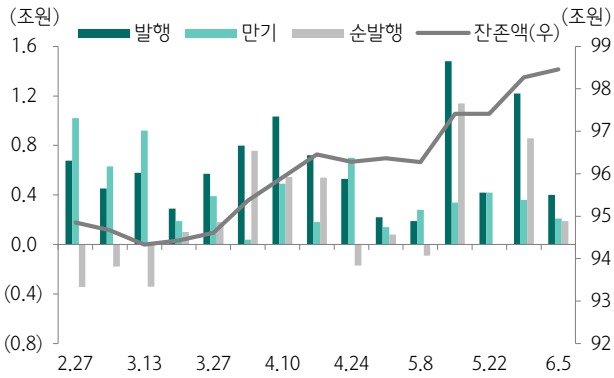
주: 발행일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10. 은행채 발행/만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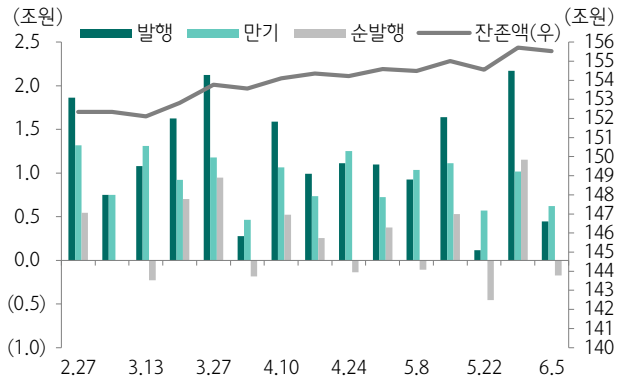
주: 발행일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11. 카드채 발행/만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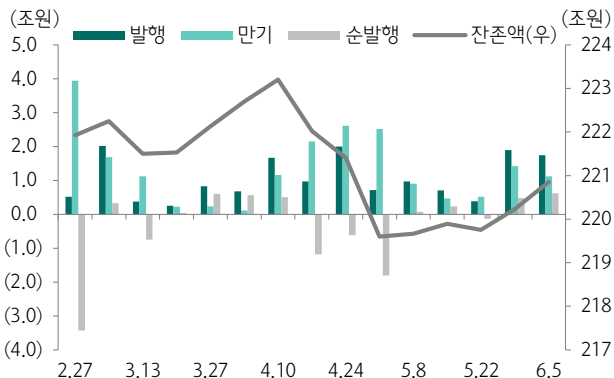
주: 발행일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12. 캐피탈채 발행/만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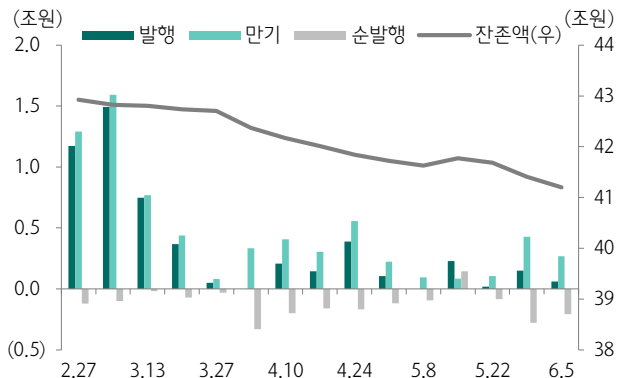
주: 발행일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13. AA등급 이상 회사채 발행/만기 현황



주: 발행일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14. A등급 이하 회사채 발행/만기 현황



주: 발행일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15. 회사채 수요예측 결과

(단위: 억원, bp, %)

수요예측일	종목명	신용 등급	발행일	발행 만기	금액		참여 금액	수요예측 경쟁률(:1)	금리밴드			결정 스프 레드	사용목적
					발행	예측			기준금리	하단	상단		
2026-06-01	DB손해보험(신종)4	AA0	2026-06-09	30Y (5Y콜)	4,100	3,000	2,550	0.85	절대금리	4.7	+5.3	5.3	채무상환
2026-06-01	롯데쇼핑109-1	AA-	2026-06-09	2Y	1,100	800	5,100	6.38	개별민평	-30.0	+30.0	-1.0	채무상환
2026-06-01	롯데쇼핑109-2	AA-	2026-06-09	3Y	1,500	1,200	5,750	4.79	개별민평	-30.0	+30.0	-1.0	채무상환
2026-06-01	대한항공118-1	A0	2026-06-11	2Y	2,050	800	5,710	7.14	개별민평	-30.0	+30.0	-3.0	채무상환
2026-06-01	대한항공118-2	A0	2026-06-11	3Y	1,950	1,200	5,430	4.53	개별민평	-30.0	+30.0	-2.0	채무상환
2026-06-04	신한은행(후)3006-01-01	AA0	2026-06-12	10Y	2,500	2,000	4,300	2.15	국고민평	30.0	+85.0	78.0	운영자금
2026-06-04	에스케이브로드밴드60-1	AA0	2026-06-12	5Y	1,300	800	4,500	5.63	개별민평	-30.0	+30.0	5.0	시설자금
2026-06-04	에스케이브로드밴드60-2	AA0	2026-06-12	10Y	300	300	1,400	4.67	개별민평	-30.0	+30.0	-13.0	시설자금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하나증권

주: 공란은 수요예측 결과 공시 전 / 수요예측 경쟁률은 유효수요 기준

도표 16. 이번 주 회사채 수요예측 대상 기업

(단위: 억원, bp, %)

수요예측일	발행사	회차	신용 등급	발행일	발행만기	예측금액	금리밴드			사용목적
							기준금리	하단	상단	
2026-06-05	NH투자증권	76-1	AA+	2026-06-16	2Y	1000	개별민평	-30	30	채무상환
2026-06-05	NH투자증권	76-2	AA+	2026-06-16	3Y	1500	개별민평	-30	30	채무상환
2026-06-05	NH투자증권	76-3	AA+	2026-06-16	5Y	500	개별민평	-30	30	채무상환
2026-06-08	케이비증권	50-1	AA+	2026-06-15	2Y	1500	개별민평	-30	30	채무상환
2026-06-08	케이비증권	50-2	AA+	2026-06-15	3Y	2500	개별민평	-30	30	채무상환
2026-06-09	케이티스카이라이프	20-1	AA-	2026-06-17	2Y	200	개별민평	-30	30	채무상환
2026-06-09	케이티스카이라이프	20-2	AA-	2026-06-17	3Y	300	개별민평	-30	30	채무상환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하나증권

## 유통시장

도표 17. 주간 회사채 유통시장 상위거래

(단위: 억원, %, bp)

종목명	신용등급	거래금액	거래일	만기일	잔존기간	민평금리	평균거래금리	평균-민평
KB금융지주59	AAA	1,000	2026-06-01	2029-03-26	3년	4.075	4.078	0.3
메리츠증권2311-3	AA0	800	2026-06-01	2026-11-23	6월	3.176	3.244	6.7
SK텔레콤76-3	AAA	700	2026-06-02	2029-07-29	5년	4.187	4.178	-0.9
한국남부발전80-1	AAA	600	2026-06-01	2028-06-16	2년6월	4.100	4.170	7.0
KB금융지주39-2	AAA	600	2026-06-01	2029-10-15	5년	4.109	4.159	5.0
KB금융지주38-2	AAA	500	2026-06-02	2029-06-19	5년	4.162	4.157	-0.5
농협금융지주15-2	AAA	477	2026-06-01	2026-09-30	6월	2.977	3.160	18.3
에스케이하이닉스224-4	AA+	400	2026-06-05	2033-02-14	7년	4.439	4.540	10.1
대한항공115-2	A0	400	2026-06-05	2031-03-10	5년	5.010	5.044	3.4
한국수력원자력73-1(녹)	AAA	400	2026-06-05	2028-05-22	2년	4.143	4.203	6.0

주: 1) 2026.6.01~2026.6.05, 2) 발행물, 유통화증권 제외. 선순위, 무보증, 공모채기준 100억원 이상 거래  
자료: 본드웹,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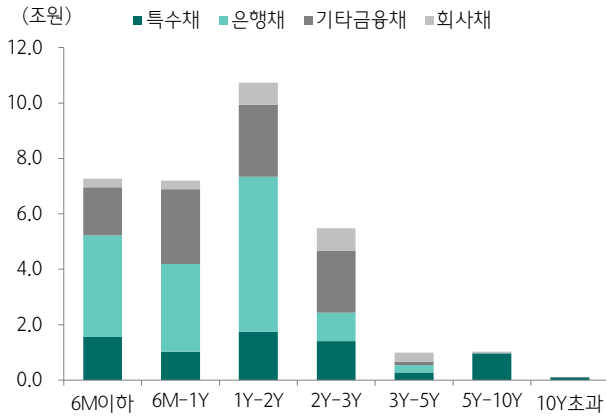
도표 18. 주간 회사채 강/약세거래 현황

(단위: 억원, bp)

강세				약세			
종목명(잔존기간)	신용등급	거래량	평균-민평	종목명(잔존기간)	신용등급	거래량	평균-민평
호텔신라77-2(3년)	AA-	200	-15.8	동화기업25(1년6월)	BBB+	142	36.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28-1(2년)	A+	200	-11.5	롯데물산12-2(녹)(3월)	A+	200	33.8
유안타증권90-2(2년)	AA-	300	-4.0	농협금융지주15-2(6월)	AAA	477	18.3
LG전자95-1(1년)	AA0	305	-3.1	대한항공110-1(2년)	A0	301	15.7
KB금융지주46-3(2년)	AAA	200	-2.3	금호타이어15-2(2년)	A0	300	15.0
SK텔레콤76-3(5년)	AAA	700	-0.9	현대트랜시스48-1(1년)	AA-	300	13.5
KB금융지주38-2(5년)	AAA	500	-0.5	LG전자98-3(5년)	AA0	100	12.9
에스케이하이닉스224-2(2년)	AA+	100	-0.4	현대트랜시스48-1(1년)	AA-	300	11.4
한국남동발전63-1(1년)	AAA	300	0.0	롯데쇼핑106-1(1년6월)	AA-	300	10.7
메리츠증권2412-1(2년)	AA0	200	0.0	에스케이하이닉스224-4(7년)	AA+	400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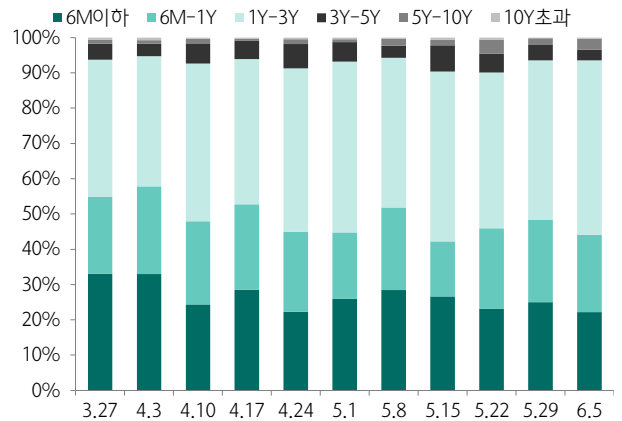
주: 1) 2026.6.1~2026.6.5, 2) 발행물, 유통화증권 제외. 선순위, 무보증, 공모채기준 100억원 이상 거래  
자료: 본드웹, 하나증권

도표 19. 주간 잔존기간별 거래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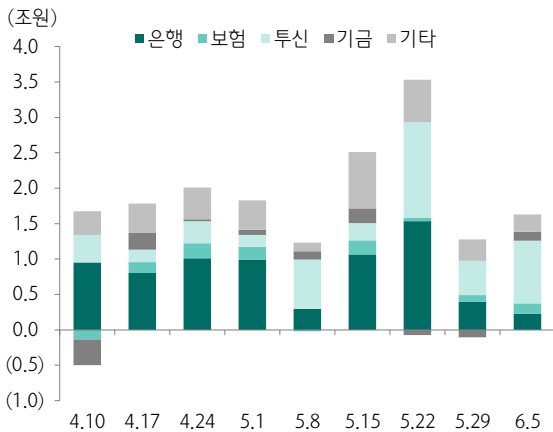
주: 2026.6.1~2026.6.5  
 자료: 금융투자협회, 하나증권

도표 20. 주간 잔존기간별 거래대금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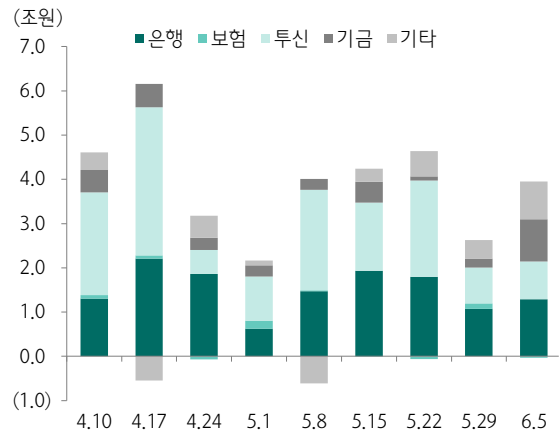
주: 주간단위(월~금) 작성  
 자료: 금융투자협회, 하나증권

도표 21. 투자자별 특수채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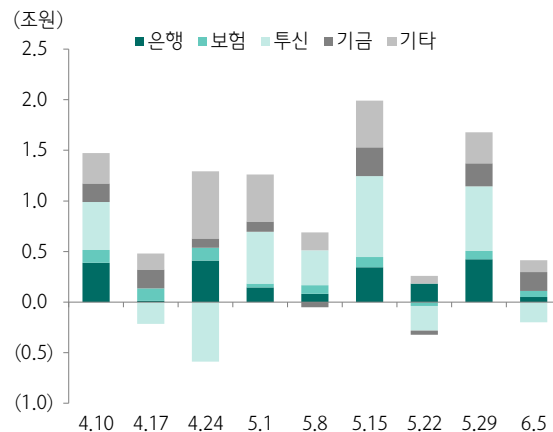
주: 기타에는 기타법인, 개인, 국가/지자체, 외국인, 종금 등 포함  
 자료: 금융투자협회, 하나증권

도표 22. 투자자별 은행채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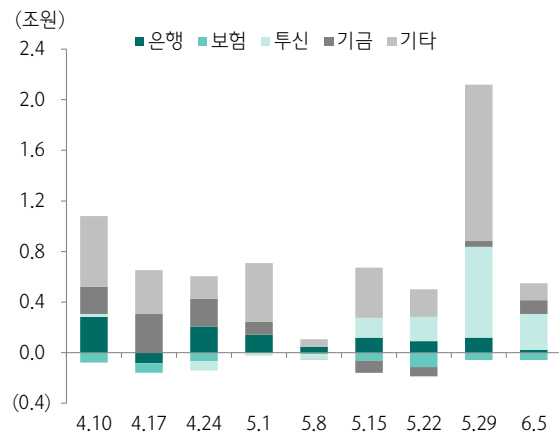
주: 기타에는 기타법인, 개인, 국가/지자체, 외국인, 종금 등 포함  
 자료: 금융투자협회, 하나증권

도표 23. 투자자별 여전채 순매수 추이



주: 기타에는 기타법인, 개인, 국가/지자체, 외국인, 종금 등 포함  
 자료: 금융투자협회, 하나증권

도표 24. 투자자별 회사채 순매수 추이



주: 기타에는 기타법인, 개인, 국가/지자체, 외국인, 종금 등 포함  
 자료: 금융투자협회, 하나증권

도표 25. 발행사 긍정적 등급전망 현황 (BBB- 등급 이상, 무보증 선순위채, 보험지급능력평가 / 6.5 기준)

구분	한신평	나신평	한기평
상향 검토			
긍정적	엘에스일렉트릭(AA0/종합가전) 엘에스일렉트릭(AA-/전기장비) 포스코인터내셔널(AA-/종합상사) 한국항공우주산업(AA-/방산) 현대코퍼레이션(A0/종합상사) 디엘에너지(A0/지주) 대한항공(A0/항공) 씨제이씨지브이(A-/영화관)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A-/지주) 한진칼(A-/지주) 코스맥스(BBB+/화장품) 한진(BBB+/물류) 가나안(BBB/제조업)	엘에스일렉트릭(AA-/전기장비) 한국항공우주산업(AA-/방산) 포스코인터내셔널(AA-/종합상사) 금호석유화학(A+/석유화학) 디엘에너지(A0/지주) 현대코퍼레이션(A0/종합상사) 금호타이어(A0/타이어) 씨제이씨지브이(A-/영화관) 한진(BBB+/물류) 두산에너지빌리티(BBB+/원자력)	엘에스일렉트릭(AA-/ 전기장비) 풍산(A+/비철금속) 통영에코파워(A+/화력발전) 현대코퍼레이션(A0/종합상사) 파라다이스(A0/카지노) 대한항공(A0/항공) 에이치디건설기계(A0/건설기계) 금호타이어(A0/타이어) 씨제이씨지브이(A-/영화관)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A-/지주) 한진칼(A-/지주) 삼성중공업(A-/조선) 한화오션(A-/조선) 한진(BBB+/물류) 케이카캐피탈(BBB0/캐피탈) 티와이엠(BBB-/농기계)

자료: 신용평가 3사, 하나증권

도표 26. 발행사 부정적 등급전망 현황 (BBB- 등급 이상, 무보증 선순위채, 보험지급능력평가 / 6.5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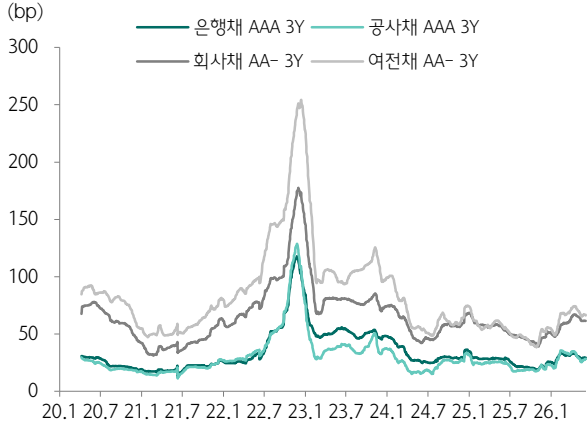
구분	한신평	나신평	한기평
하향 검토	에스케이디앤디(BBB0/부동산개발) 에스케이실트론(A+/반도체)		에스케이디앤디(BBB0/부동산개발) 에스케이실트론(A+/반도체)
부정적	엘지화학(AA+/석유화학) 에스케이오센트릭(AA-/석유화학) 포스코이앤씨(A+/건설) HD현대케미칼(A0/석유화학) 여천NCC(A-/석유화학) 무림페이퍼(A-/제지) 에스케이어드밴스드(BBB+/석유화학) 한솔홈데코(BBB0/건축자재) 에스엘엘중앙(BBB0/미디어) 중앙일보(BBB0/미디어)	엘지화학(AA+/석유화학) 호텔신라(AA-/면세) 한화솔루션(AA-/석유화학) 한화토탈에너지스(AA-/석유화학) SK지오센트릭(AA-/석유화학) 동아에스티(A+/제약) 포스코이앤씨(A+/건설) HD현대케미칼(A0/석유화학) 한국자산신탁(A0/신탁) 풀무원식품(A-/식품제조) 신한자산신탁(A-/신탁) 에스케이어드밴스드(BBB+/석유화학) 제이티비씨(BBB0/방송) 중앙일보(BBB0/미디어) 신원(BBB-/의류제조)	엘지화학(AA+/석유화학) 한화솔루션(AA-/석유화학) 한화토탈에너지스(AA-/석유화학) SK지오센트릭(AA-/석유화학) 호텔신라(AA-/면세) 현대엘리베이터(A+/승강기) 동아에스티(A+/제약) 포스코이앤씨(A+/건설) HD현대케미칼(A0/석유화학) 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A0/이차전지 소재) 한국자산신탁(A0/신탁) SK실더스(A0/보안) 대우건설(A0/건설) 여천NCC(A-/석유화학) 무림페이퍼(A-/제지) 대동(BBB+/농기계) 비에스한양(BBB+/건축) 제이티비씨(BBB0/방송) 쿤텐트리중앙(BBB0/미디어) 에스엘엘중앙(BBB0/미디어) 중앙일보(BBB0/미디어) 깨끗한나라(BBB0/제지)

자료: 신용평가 3사, 하나증권

# Key Chart

## 주요금리차(1)

주요 크레딧채권 신용스프레드(3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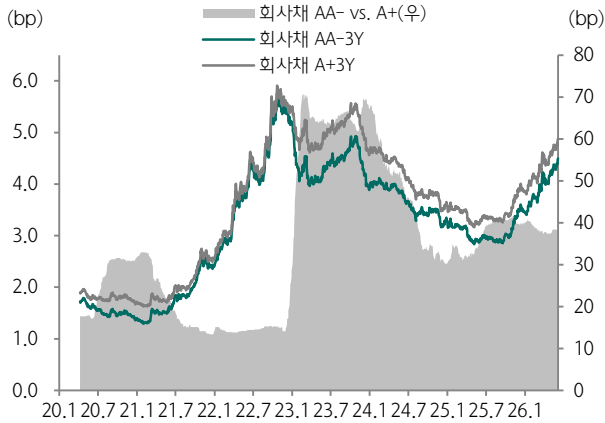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주요 크레딧채권 신용스프레드(1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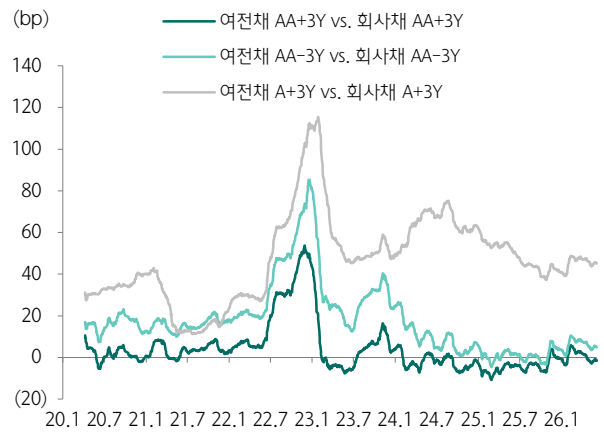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회사채 AA-/A+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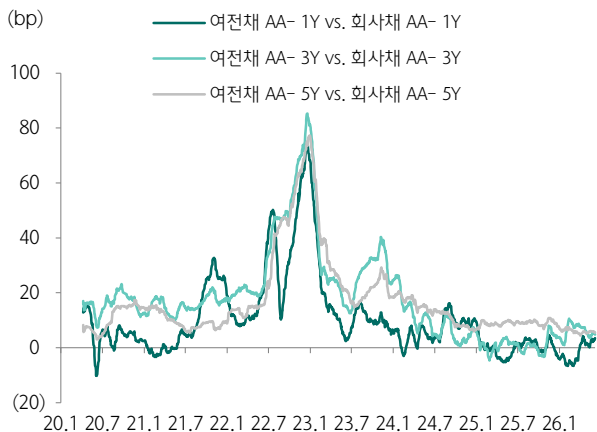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여전채3Y/회사채3Y 스프레드 (AA+/AA-/A+)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여전채/회사채 스프레드(1Y/3Y/5Y)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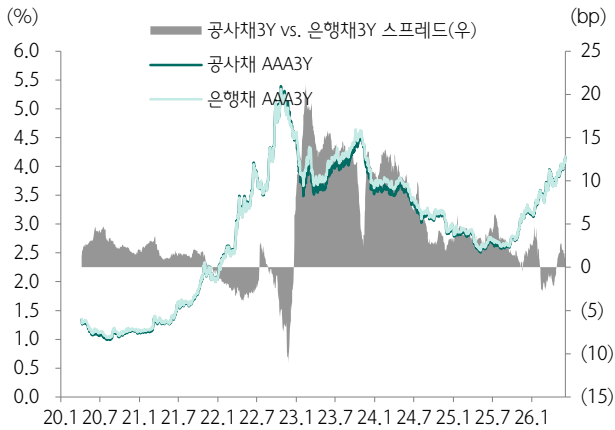
국채 장단기 스프레드 및 회사채 AA- 스프레드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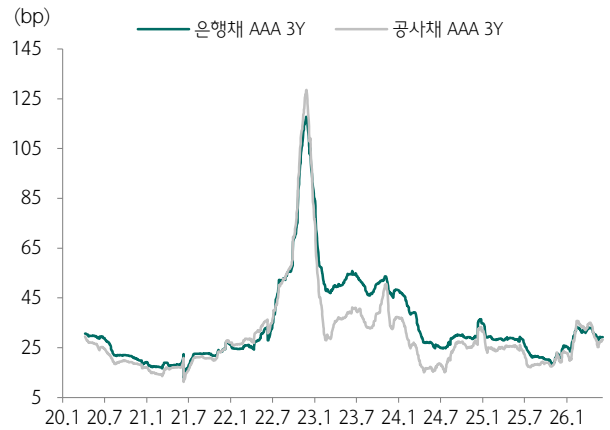
## 주요금리차(2)

특수채3Y/은행채3Y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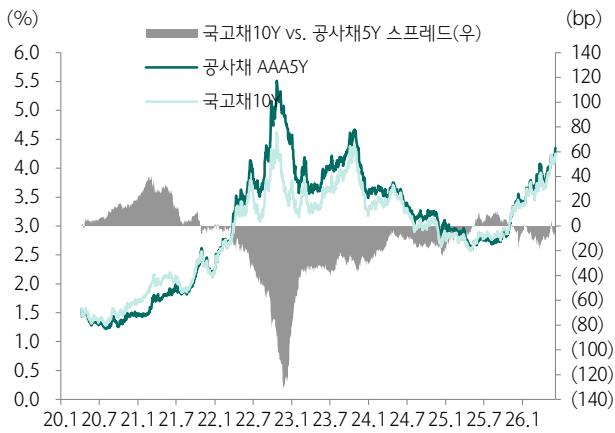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특수채AAA/은행채AAA 국고대비 Spread(3Y)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국고채10Y/특수채5Y 스프레드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특수채AAA/은행채AAA 회사채(AA-)대비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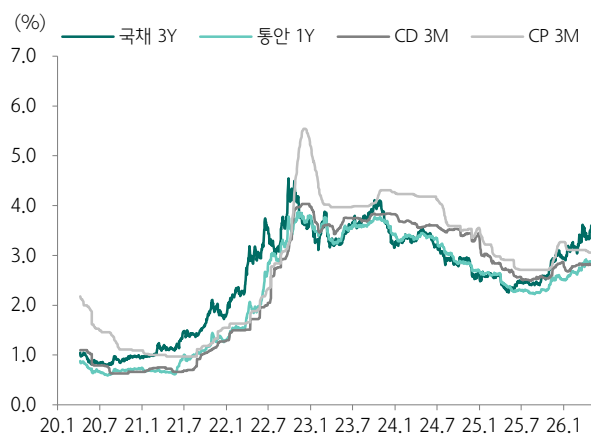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카드채AA+/캐피탈채AA- 회사채(AA-)대비 스프레드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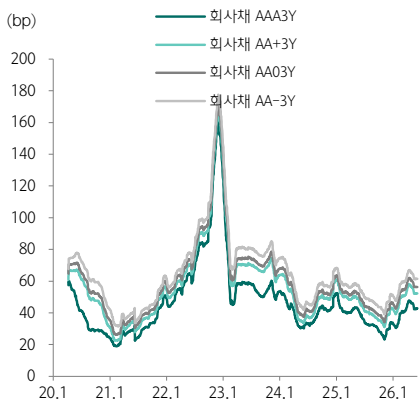
CP 3M/CD 3M/통안채1Y/국채3Y 금리 추이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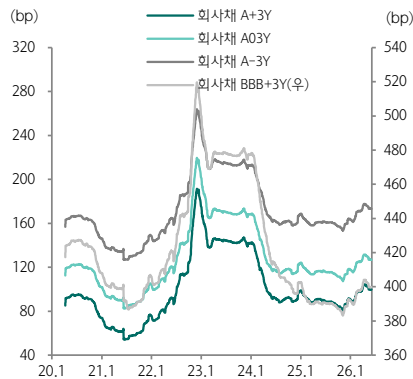
### 주요금리차(3)

AA등급 이상 회사채 스프레드 추이(3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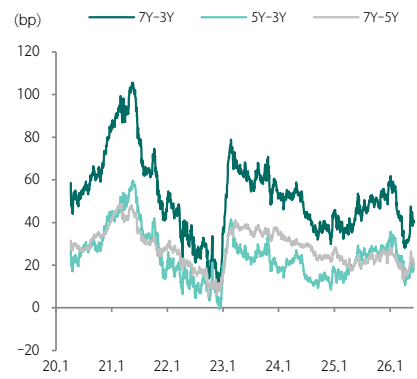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등급 이하 회사채 스프레드 추이(3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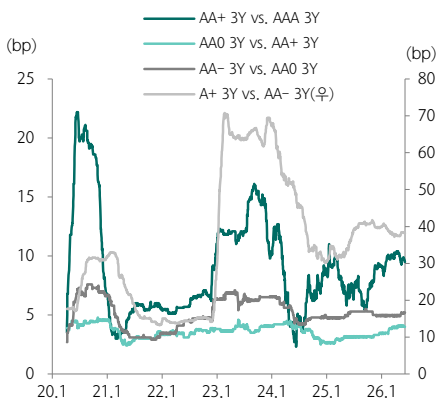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회사채 AA- 장단기 스프레드(3Y/5Y/7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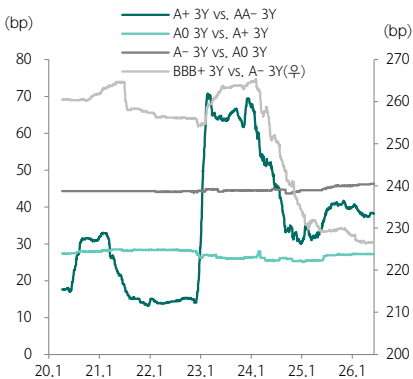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회사채 등급 간 스프레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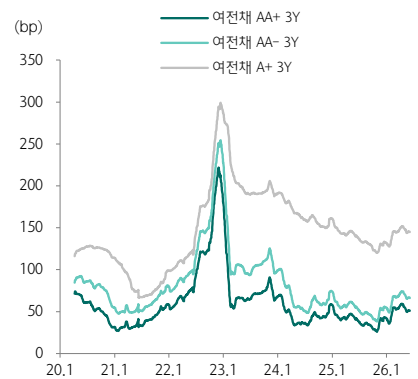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회사채 등급 간 스프레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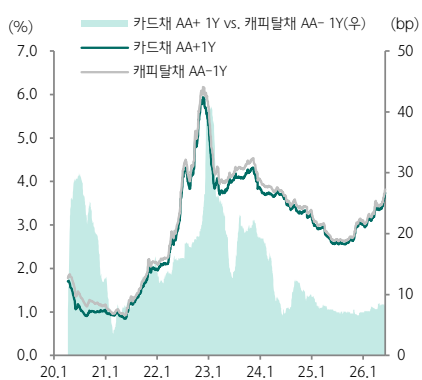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여전채 3Y 스프레드 추이(AA+/AA-/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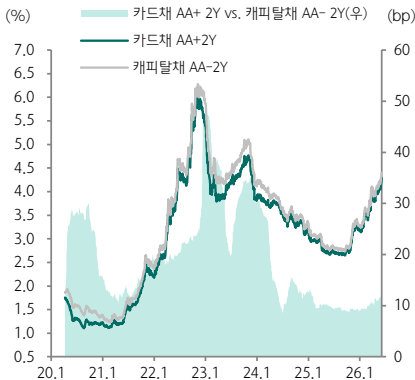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카드채/캐피탈채 스프레드(1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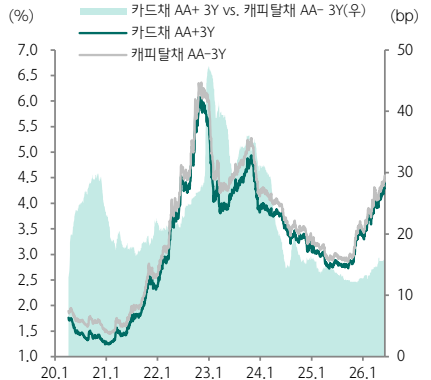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카드채/캐피탈채 스프레드(2Y)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카드채/캐피탈채 스프레드(3Y)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